

“강제동원 피해자 서훈 보류, 분노 느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본 시민단체 대표가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보류에 대해 “양국 외교 관계를 의식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나고야 소송지원회) 다카하시 마코토(橋本 公徳)대표는 1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할머니의 서훈 보류에 대해 분노와 항의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다카하시 대표는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 수여 결정을 갑자기 중단한 배경은 일본 정부를 고려한 것이다. 한일 양국에 분노를 느낀다”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가해 기업들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자세를 호재로 여기고, 양국 정부 협상을 방관자로서 바라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범기업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日 양심단체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 기자회견 “강제동원 배상 이행 지연 참담...강경 대응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본 시민단체 대표와 양금덕 할머니.

배상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다카하시 대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4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배상)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타계하는 것을 생각하면 가해국 시민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는 재판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일본제철에 (배상 이행) 요청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에서 피고 기업과 일본 정부에 공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일본에선 역사 수정주의가 횡행하며 관동 대지진 조선인 대학살을 부정하는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견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양 할머니의 비극적인 사연을 다룬 연극 ‘봉선화 2022’ 출연진도 함께 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서한 취소에 대해 “(외교부 박진 장관이) 찾아와 무릎을 꿇었지만 벌써 변심했다”며 “서한 취소 소식을 듣고선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다카하시 대표는 과거사 기억·계승 공간인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가칭) 건립 추진을 지지한다며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이 모은 역사관 건립자금 100만원(약 954만원)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전달했다.

/조일상 기자

북구 환경관리 실태 ‘광주 유일’ 우수 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률·오염동 검사율 등 높은 평가

북구는 환경부 주관 ‘2022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에는 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 6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된다.

올해 기초지자체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위업무 관리감독 ▲배출업소 협업관리 등 3대 분야·8개 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북구는 배출업소 점검률, 오염도 검사율, 위반업소 적발률 등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감시 인력 교육 훈련 부분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북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분기마다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또 환경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에는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배출업소 협업관리 등 3대 분야·8개 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주성조 기자

전남소방, 주택화재 인명피해 최소화 온힘 소방지휘관 영상회의 열어 예방·대응 대책 논의

전남소방본부는 최근 장흥과 순천 등에서 주택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소방지휘관 영상회의를 지난 12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조일 본부장과 본부장·팀장·도내 20개 소방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주택화재 현황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예방·대응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장흥 공장 화재로 수소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보다 앞선 2일 순천 주택화재로 모자가 사망하는 등 최근 잇따른 주택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올해 12월 기준 주택화재는 492건으로 전체 화재(2천799건)의 17.5%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망자는 전체 30명 중 22명으로 73.3%로 높다.

주택화재 원인은 부주의와 전기

적 요인 비율이 높았으며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60~80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남소방본부는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화재 대응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이·통장단, 경로당 방문교육 및 기능순찰, 마을방송을 통해 화재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또 전기시설 안전지킴이 서비스 ‘트래킹 클리너’ 센터를 운영하고 화재경보기 보급, 노후전선 교체 등 취약계층 화재안전 서비스를 한다.

이밖에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신속 대응을 위한 소방호스 전개 및 소화전 점검 훈련을 실시하고 진압대원 중 인명구조 전담자 지정 및 주택화재 사망자 발생 시 소방활동 검토회의 개최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박재배 기자

시교육청 PC보급 659억 예정위 통과...AI플랫폼 전액 삭감

혁신학교운영예산 증액·대안학교 마스크 지원 예산 신설

광주시교육청이 2023년도 본예산 3조575억원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시의회 상임위가 심의를 통해 이 정선 교육감의 주요 공약 예산인 ‘학생 1인 IPC 보급 659억원’ ‘청사이전 용역 2억원’ 등을 원안 의결했다.

반면 ICT활용교육지원 예산 50억원과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예산 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13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결과보고에 따르면 2023년도 시교육청 본예산은 3조575억원 규모이며 지난해 본예산보다 4655억원(18%) 증가한 규모다.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5305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

입 4686억원, 기타 이전수입 186억원, 자체수입 및 기타로 3998억원을 세입재원이 활용됐다.

이 중 지난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학생 1인 IPC 보급예산 659억원은 본예산에 반영됐다. 이 예산은 이 정선 교육감의 공약으로 중학생에게 4만3000여대의 노트북, 고교생에게 2만3000여대의 태블릿PC를 보급할 계획이다.

넓은 시교육청사 이전을 위해 추진되는 용역예산 2억여원도 시의회 교문위와 예결위 심의를 통과했다.

또 혁신학교운영지원(중등) 예산이 3억8000여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되는 등 특색교육과정운영 예산 대

부분이 증액됐다. 초등(특수)교원 명예퇴직수당도 시교육청은 30억원을 제출했지만 예결위는 10억원 증액한 40억원으로 증액 의결했다.

이 밖에도 금호고 배수로 덮개 5000만원, 대안학교 마스크 구입 2100만원, 고려고 기숙사 난방 1억5000만원, 성덕중 전자철판 4200만원, 기계설비개선 7억9600만원이 예결위의 심의를 통해 예산이 책정됐다.

반면 실습지도수당 4500만원과 인공지능(AI)교육과정 개발정책 연구용역 1억2000만원, K-에듀통합플랫폼인프라구축 49억4800만원, 소통 및 협치 온라인플랫폼구축 1억2400만원, 대면국제교류학교지원 1억1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김도기 기자

광주 CCTV통합센터, 실적 4830건

강력범·절도 등 범인 검거 719건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잠들지 않는 감시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3년 5월 문을 연 CCTV통합관제센터는 방범용·어린이 보호용·차량번호 인식용 등 총 9600여대의 CCTV를 체계

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89명의 관제원이 5개조 3교대로 연중무휴 24시간 관제를 통해 빈틈없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개소 이래 강력범·절도 등 범인 검거 719건, 응급환자·재난재해·교통사고를 비롯한 사건·사고 예방 활동 4830여 건의 실적을 거뒀다.

/조일상 기자

무안소방서, 휴업 주유소 안전관리 미흡 화재위험 당부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휴업 중인 주유소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화재 위험성이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주유소 관계인은 휴업을 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한 후 관할 소방서에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무안에 휴업 중인 주유소는 2개소이며, 두 대상 모두 안전조치를 완료 후 사용 중지 신고를 했으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휴업기간이 장기간 지속되어 주유소의 시설 노후 및 캐노피 붕괴 등에 따른 주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소방서 위험물 관계자는 “매월 휴업 주유소를 방문해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하고, 화재 예방 등 안전을 위해 휴업기간이 2년 이상 된 주유소에 대해 주유소를 철거·해체해 용도폐지신고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면서 화재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순천국유림,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순천시 서면 일원의 관내 임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최근 임업인들의 현 실태와 어려움을 직접 들어보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

는 적극행정과 산림규제혁신과제 등을 홍보했다.

산림청은 현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기본교육 35시간 이상만 이수) 및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혁신을 통해 임업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임업직불금제도 시행에 따른 인아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조은의 기자

농장직영 진남맹생이탕

농장직영

예약문의 : 010-3925-3842

연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박 래 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